



“실종수사팀 확대·야간 2인 근무… 관리감독 강화”

제주경찰청, 제주 치안 우려에 ‘안전 종합대책’ 발표
김병찬 신임 청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종수사팀 인원을 확대하고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수색사항 등 처리과

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선 경찰서장 주관 점검을 실시해 종결사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의 소재가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실종수사팀 인원도 확대한다. 각 경찰서 4~5명이 근무하던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늘린다. 각 경찰서마다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 2인 근무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



9일 제주경찰청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연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 제공

임자로 지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도보순찰과 거점순찰을 강화하는 등 제주 전역에 경찰력을 집중해 ‘보이는 치안’을 해나간다.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도 실시해 CCTV·비상벨·

조명시설 등 미흡한 시설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완·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면서 도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허위·조작정보와 2차 피해 유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과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는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자전거 타던 中 관광객 2.5m 아래로 추락 중상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외국인 관광객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7분쯤 제주시 우도면 비양동에서 중국 국적 40대 여

성 A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2.5m 갯바위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양유리기자

도두항 방파제 해상서 50대 숨진 채 발견

제주시 도두항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 도두항 서측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

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0대 남성 A씨를 인양했다. 인양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사건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최근 5년 제주 해상 어선사고 급증세

2022년~올해 8월 기준 661건… 지난해 199건 최다

사고 원인별 부유물 감김·기관 손상·충돌 등 많아

최근 5년간 제주지역 해양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기관 손상·충돌 등 어선 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각별히 요구된다.

9일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2022년 107건, 2023년 123건(15%), 2024년 166건(35%), 2025년 199건(20% 이상 전년비 증가율), 2026년 8월말 기준 84건 등 총 661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어선사고의 사고 원인별로는 부유물 감김 236건(36%), 기관 손상 195건(30%), 충돌 64건(10%), 좌초 39건(6%) 등이다. 이어 추진축계 손상 31건, 침수 26건, 조타장치 손상 24건, 화재 23건, 전복 14건 등의 순이다. 2024년에는 침몰 사고 2건이 있었다.

이 기간에 제주시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도 326건으로 적잖았다. 연도별로는 2022년 43건, 2023년 65건, 2024년 77건, 2025년 101건, 2026년 8월말 기준 49건 등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제주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부유물 감김 107

건, 기관 손상 93건, 충돌 49건이 76%를 차지했다.

제주시는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최근 5년간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내 등록 낚시어선 168척 가운데 출항 빈도가 높은 13인 이상 낚시어선, 2025년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통신기기 등 안전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낚시어선 검사 및 신고확인증 게시 등 어선관리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관리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운항 준수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실종 허위종결 사건 관련

검찰, 경찰 이틀째 압수수색

A경장 구속기간 20일로 연장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주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제주청 강력계,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 실종수사팀 등에서 9시간 넘게 압수수색



천고마비의 계절… 한가로이 풀 뜯는 조랑말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초가를 날씨가 이어진 9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박물관 발판에서 천연기념물 조랑말들이 풀을 뜯고 있다. 강희만기자

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경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

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제주지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만료될 예정이던 A경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A경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소정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